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6호 【루계 제25219호】 주체105(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7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자

우리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는 이 땅우에 민족사적인 혁대사변들을 펼쳐놓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천만군민의 신념과 생활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는것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전선에서 승전고를 높이 울리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기적과 생산적앙양은 이에 대한 증시로 된다. 격동적인 현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으로,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대고조전군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주고있다.

증철되는 만난시련을 자강의 억센 힘으로 맞받아뚫고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원칙과 노력으로 최후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기 힘을 비상히 강화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강인담대한 배짱, 선군조선의 승리의 법칙과 무한대한 힘이 응축되여있다. 위대한 인민, 불패의 강국의 존엄을 빛내이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진로가 명시되여있다는데 자강력제일주의의 견인력과 생명력이 있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이지만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강력은 강성번영의 최강의 무기이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가장 비참한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주체의 핵강국, 위성강국으로 솟구친 극적인 전변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전진도상에 어떤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여도 그 승리적전진의 유일한 출로는 자강력을 때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 당이 자강력제일주의를 제시한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력과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백두산대국의 정치군사력이 무섭게 폭발되고있으며 온 나라에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휘몰아치고있다.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최대로 분출되고있는 70일전투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살아 맥동치는 한 우리의 숭고한 위업, 우리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자강력은 혁명과 건설의 제일 큰 힘이며 최후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도약하고있다. 세기를 이어온 백승의 전통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이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최강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70일전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국건설의 웅대한 리상을 최대로 앞당겨 실현해나가는 영웅적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더해주는 거창한 투쟁이다.

우리가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 내달리며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면 자강력을 증대시키고 그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혁명은 누가 도와줄수도 대신해줄수도 없다. 자강력이 강해야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굴함없이 걸어갈수 있으며 대담하고 통이 큰 일판을 벌리고 그 어떤 높은 목표도 마음먹은대로 점령할수 있다.

70일전투를 맹렬히 벌려나가는 총진군대오에 크고작은 일, 선후차는 있을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제일 큰 힘은 자강력이다.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자강력을 튼튼히 다질 때 우리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자강력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의 정신적원천이고 주체의 혁명진지강화의 근본초석이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남달리 자존심이 강하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할 일을 보란듯이 다해나가는 만만한 기개, 그 어떤 불가능도 기어이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완강한 공격정신, 귀중한 자기의것을 침해하려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불타는 증오,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담대한 배짱이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같은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왔다.

70일전투를 계기로 전체 인민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뭐니뭐니해도 자강력을 높여야 한다.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억세게 벼려주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과 같은 잡사상, 잡귀신들을 완전히 뿌리뽑는 가장 위력한 무기가 자강력이다.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민족자존의 강의한 의지에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나오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불굴의 기개와 높은 창조력이 나온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잡요물들이 혁명대오안에 발붙일 틈이 없어지게 되며 우리 혁명진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다.

자강력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 원동력이다.

지금 70일전투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공공연히 노린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사상 최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소동속에서 벌어지고있다. 미국주도하에 조작된 불법무법의 새로운 《제재결의》는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원쑤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수십성상 다지고다진 무진막강한 자강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제재와 봉쇄는 결코 만능이 아니며 우리의 자강력을 최대로 높여나갈 때 적들의 그 어떤 제재봉쇄책동도 맥을 추지 못한다. 70일전투기간 모든 부문을 자력자강으로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은 모든 전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과감한 실천으로 되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백두전역과 세포지구에서 창조되고있는 놀라운 공사속도들, 각지 전력생산기지들과 석탄전선,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생산실적, 경공업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와 최첨단돌파의 자랑찬 성과들은 자강력의 거세찬 폭발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 창출하고 70일전투기록장에 최고의 실적, 최상의 성과를 수놓아가는 근본비결은 자강력, 주체적력량을 최대로 발동하는데 있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필승불패성을 굳게 확신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유훈에 무한히 충실하였기때문이다. 자력자강한다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집대성되여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화, 체질화하고 그 요구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하시였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언제나 수령님들의 교시에 립각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습벽을 붙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이자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길높이 자강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자강력의 원천이다.

붉은기의 넋을 안고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 1호, 이것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제일로 여기는 인민만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낼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피땀으로 수호하고 빛내여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 100% 국산화된 주체위성들을 마음먹은대로 우주만리에 쏘아올리는 백두산대국의 아들딸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한다. 비록 현란하고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자기의 창조물이 남만 못지 않다는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우리 의것이라고 뗏뗏이 자부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에서 일떠세우고 생산품을 하나 내놓아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이다.

자강력은 구호를 웨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것이 아니다. 지난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며 단숨에 솟아난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포화속에서 높이 발휘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로동계급처럼 자기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전진하는 대오에 제동을 거는 소극파 보수, 침체와 탐보, 안일과 해이를 만리마의 기상으로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

오늘의 자력자강의 대진군은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대진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으로 꾸릴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한데 있다.

우리는 과학으로 올해의 첫문을 연 당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새기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강력을 키워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렴구를 내고 최첨단돌파전의 혁혁한 성과를 안고 승리의 5월을 맞이해야 한다.

일군들이 자강력의 제일강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새로운 승리의 진격로를 철저히 자강력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70일전투성과의 에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생산자대중의 사상정신력과 과학적창조력,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는소리만 하는 현상, 자기의것은 홀시하고 덮어놓고 남의것만 쳐다보는 그릇된 태도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걸린 문제를 스스로 맡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선구자,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을 지녀고 경제조직과 지도를 치밀하게 짜고드는 창조의 능수, 국가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기 단위 사업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전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힘있게 벌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자력갱생의 북소리, 진군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림으로써 70일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불길, 사회주의경쟁열풍이 더욱 고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70일전투기록장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강력을 키워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렴구를 내고 최첨단돌파전의 혁혁한 성과를 안고 승리의 5월을 맞이해야 한다.

일군들이 자강력의 제일강자가 되여야 한다.

모두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속도와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콰도르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콰도르중앙선거리사회 조정자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에콰도르중앙선거리사회 조정자 메네모제 모스께라가 4일 베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에서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준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을 비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소한 도발행위라도 발생한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타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것을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면서 조선로동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반격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세울것을 지시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모스끄스끼 끄쏘볼레쯔》, 《붸도모스찌》, 《에꼬노미체스끼에 이즈베스찌야》, 《아르구멘뜨 네데질리》, 로씨야 24TV방송, 엔테붸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렌뜨르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렌따.루, 프레스룬겔뜨, 레그늄, 뉴스루, 쿱, 인터네트TV 《미르24》,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중국보도망, 신화망, 환구망, 꾸바의 쁘렌싸라띠나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땅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땅크병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조선이 먼저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땅크병들이 무쇠철갑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올해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으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도이췰란드, 민주꽁고의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로씨야, 체스꼬, 도이췰란드, 민주꽁고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만마련명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자유동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푼씬레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위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전련맹 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쏘련공산당 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지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쩔트민족인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쩔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베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맑스-레닌주의공산당 총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페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총서기, 자유루표동맹을 위한 페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 고위지도자, 수리아아랍공화국 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국방상,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쩔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아인속무용단 지배인,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아협주단 단장,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아협주단 단장, 이딸리아종합무자그룹 리사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베라루, 말레이시아, 만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우즈베끼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라뜨비야,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데예,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말리, 세네갈, 잠비아, 민주꽁고, 뚜니지, 앙골라, 우간다, 에쩔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꼴롬비아, 페루, 에꽈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발전시키시고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선인민의 절출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생애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숭고한 귀감으로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와 스웨데예의 룽산당 위원장, 빠라과이룽산당 국제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에서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준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을 비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소한 도발행위라도 발생한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타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것을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면서 조선로동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반격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세울것을 지시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모스끄스끼 끄쏘볼레쯔》, 《붸도모스찌》, 《에꼬노미체스끼에 이즈베스찌야》, 《아르구멘뜨 네데질리》, 로씨야 24TV방송, 엔테붸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렌뜨르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렌따.루, 프레스룬겔뜨, 레그늄, 뉴스루, 쿱, 인터네트TV 《미르24》,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중국보도망, 신화망, 환구망, 꾸바의 쁘렌싸라띠나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도이췰란드반제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이란에서 결성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9일 이란이슬람교련합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총비서 하미드 베자 하라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출판보도물을 통한 소개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크나큰 행운이다. 그이께서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하시였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끄떡없이 지켜내고있으며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것은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꾸떠에레스가 우리 조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격정에 넘쳐 한 말이다.

그만이 아닌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천하무적의 최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흥분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총비서 낭골로 음붐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적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단장 쌩누안 싸이냐탓은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조선인민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나는 조선인민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시는 영명하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품고있다고 토로하였다.

라오스인민보위성대표단 단장 쌈께우 씨라쌍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은 강한 군력에 의해서만 수호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 무엇도 다 만들어낼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있다. 라오스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반제공동전선에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서있을것이다.

수리아놈민총동맹대표단 단장 하마드 압부드 알 사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인류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쳐물리치는 투쟁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모시고있는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중앙통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충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정론

승리의 5월에로 가자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갔다.

이 땅에 다가오는 승리의 5월, 위대한 혁명적사변의 눈부신 시각을 향하여 폭풍쳐달리는 격전의 날과 날들에 온 나라 초소와 일터들에서 씌여지는 이야기, 그 누구나 시각마다 자신들을 비쳐보는 맑고맑은 거울이 있다.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

하루의 공백도 허용할수 없고 제쓰지 못하면 잠들수 없다. 보통때보다 두배, 세배, 그보다 더 많아질수록 기쁘게 마주하는 로력적성과의 기록장이다.

묻노니 이 땅의 사람들이여, 이 시각 그대들이 펼쳐보는 전투기록장은 얼마나 두터워졌는가. 얼마나 고결한 마음과 놀라운 실적들을 거기에 아로새겼는가.

긍지높이 바라볼것이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보름 남짓한 기간 최고생산실적을 련이어 돌파하여 하루 주체철생산계획을 213%까지 초과완수한 황철의 강철전사들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을 완전결속한 소식을 승전보도처럼 울려퍼지게 한 대안의 영웅적 집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도 땀흐르는 얼굴을 씻으며 펼쳐볼것이다. 혹한속에서 한치한치 발전소완공의 시각을 앞당겨가는 청년강국의 맹장들이 불타는 시선으로 벌겨가고 한시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달려서 승리의 5월에 먼저 가닿고싶은 마음 생산현장에 구보로 새기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준마처녀들도 번개처럼 마련하는 증산의 실적들을 한자두자 써나간다.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눈에 뜨이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겠다고 맹세다지며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떠나간 과학자, 기술자들,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과 학과실력향상의 불바람이는 교정들에서 교원, 학생들도 정히 아로새겨간다.

어찌 생산실적만이랴.

잠들줄 모르는 대건설전투장의 밤, 별들은 조을어도 잠들줄 모르는 방송원의 목소리도 좋고 증산경쟁의 불도가니를 들었다놓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노래소리도 반갑다. 탄전들과 광산들에서, 용광로앞과 풍랑세찬 어로전투장들, 철야진군의 기세드높은 그 어디에서든 수고하는 남편들을 찾아 달려오는 안해들의 고무도 뜨겁게 새겨지고 혁신자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안겨주는 아이들의 꽃송이도 아름답게 씌여진다.

감히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참수작전》과 그 무슨 《제재결의》를 떠벌이며 무모한 전쟁광증을 일으키는 원쑤들을 가장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적의 함성도,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국방과학부문 전사들이 수령결사옹위의 결전장에 터치는 최첨단타격수단들의 불뢰성도 힘있게 초아박힌다.

나어린 학생소년들로부터 머리흰 로병들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한끝 산간오지 작은 마을로부터 격랑치는 날바다우에서까지 이 나라 인민모두가 새겨가는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 그앞에선 왜 이처럼 마음 숭엄해지고 생각도 말걸음도 끝없이 재촉하며 달리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하루 또 하루 우리가 70일전투기록장에 새기는 로력적성과는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에게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다.

안아키워준 이 땅, 제일 크고 훌륭한 궁전들과 선생님의 목소리도, 다정한 이웃들과 고마운 동지들, 래일의 아름다운 희망과 밝고밝은 저 해빛도 어머니 우리 당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아름다운 꿈과 행복이, 존엄높은 운명이 우리에게 차례졌는가. 한톨두톨 정성다해 자식들의 요람을 꾸미듯 우리 당이 먼 후날에 태어날 생명들까지도 품에 다 안고 가꾸어가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내 조국이고 그 품 떠나 못사는 우리의 인생은 당의 은정이 온몸에 흐르는 피가 되고 숨결과 온기가 된 복받은 삶이다.

당이여, 어머니이시여, 그대 있어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은 그 품에 모든 운명 맡기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오지 않았던가.

얼마나 험난한 시련을 헤쳐 오늘에로 왔는가. 무한한 긍지와 가슴벅찬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당 제6차대회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지나온 30여년을 돌이켜보면 천만자식들을 지키고 행복을 안겨주려 어머니가 헤쳐온 고난의 억만리길이 보이고 수없이 넘어온 사선의 험산준령들이 첩첩히 이려와 눈시울 젖어든다.

당은 곧 우리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흘러간 30여년의 낮과 밤은 그분들의 심장의 박동이 시계초침소리처럼 울리며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행복과 승리를 아로새겨온 력사의 구간이다.

이제 이것을 옛말삼아 이야기하며 살날이 옳지이요. …

깊어가는 밤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다 경사길에 미끄러져 멈춰선 승용차를 몸소 밀고가시며 우리 수령님께 하시던 말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그토록 하늘같은 업적을 쌓으시고도 언제 한번 인민에게 폐를 끼치는것을 허용치 않으신 우리 수령님께 영원히 옛말로 될수 없었던 이야기 이튿이던가. 그 사랑을 지켜 심장의 마지막박동마저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우리 장군님께서 또 수놓으시였다.

난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소.

이제 또 떠나시면 절대로 안되는 길이였건만 그이께선 말씀하시였다. 자식들에게 닥쳐오는 풍상고초를 한몸으로 막으며 불구름도 찬눈비도, 모진 아픔도 넘고 헤쳐오신 길에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12월의 눈보라길로 또다시 떠나시였다.

어머니만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할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것을 장그리 바칠수 있다.

그 가슴뜨거운 헌신의 길을 오늘은 우리 원수님 이어가신다. 희생과 고생과 슬픔을 다 합쳐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하시며 천만아들딸 모두 품에 안고 걸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사랑하는 인민을 내 살붙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지켜서라면,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두려움없이 웃으며 맞받아가시는 원수님,

지극한 충정이 아니면 그토록 숭고한 어머니의 헌신과 뜨거운 정앞에 보람을 말할수 없다. 이름은 있어도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고 숨은 쉬여도 생명을 느낄수 없다.

위대한 어머니당은 더 큰 승리,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을 안겨주려 이 땅의 아들딸들을 오늘의 70일전투에로 불러주었다.

충정의 전투기록장은 우리 천만아들딸들의 산모습이다. 그것은 인아키워준 어머니께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티없이 깨끗한 량심의 고백이며 아름답고 떳떳하게 살려는 열망의 자취이다.

70일전투로 불붙는 나라의 서부지구 탄전, 지하의 수천척막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리수복청년돌격대 대장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지난날 범한 과오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살아온 자식이였다. 그러나 못났어도 탓하지 않고 품에 안아준 어머니이시였다. 잘못 산 과거와 결별하고 돌격대를 무어 탄전으로 뛰여든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돌격대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 겨우 돌격대가 첫걸음마를 뗀것에 불과하였지만 온 나라의 모범적인 청년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한광이 생겨 처음 보는 제일 멋진 집을 지어 돌격대의 보금자리로 안겨주신 사랑이 하늘같아 그는 웨치였다.

《우리 원수님을 받들고 따르는 길에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원들은 교대가 끝나면 갱밖으로 내보내면서도 막장안에서 좀처럼 떠날줄 모른다는 그, 태양절전으로 끝낼것을 계획한 70일전투과제를 한순간이라도 드린다면 어머니품에서 영영 떨어져버릴것만 같아 작업장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불사신처럼 싸우는 아들이다. 방금전까지 뚫은 발파구멍에 화약을 충전하는 그 짧은 시간에조차 곤잠에 든 모습을 보며 누군들 눈굽이 젖지 않으랴.

생산실적을 새기기 전에 전투기록장은 이렇게 인간들의 성장을 아로새긴다. 어머니의 웅심깊은 뜻을 헤아리고 절절한 기대와 념원을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어드릴 때 인간은 또 한번 키높이 자라며 새 모습을 가진다.

얼마나 아름답고 슬기로운 인간들, 얼마나 힘있고 강의한 인간들이 충정의 전투기록장과 더불어 태여났던가.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나날에는 수령께 다지는 맹세를 피로써 아로새기며 정벌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 불사신의 영웅으로 자랐고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재더미에서는 전설속의 천리마가 네굽을 안고 날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공장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지만 제손으로 보란듯이 만든 전기기관차를 우리 당 제4차대회에 선물한 사람들,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당에 드리는 선물로 더 생산한 1000의 강냉이를 기계가 아니라 한알두알 손으로 정성껏 탈곡하였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두눈이 실명되고 전신불수에 언어장애까지 겹치여 의사표현의 모든 수단들을 잃었어도 한세기전의 력사적사실을 가지고 훌륭히 창작한 장편소설을 당 제6차대회에 선물로 올린 한 영예군인 작가의 모습…

어찌 보면 조국은 오늘 전쟁의 3년간보다, 그 어느때보다 더 엄혹한 시련을 헤치고있다.

그러나 보라. 얼마나 장한 아들딸들이 우리 원수님을 옹위하여 거인마냥 서있는가를.

만리대공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을 새기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을 드린 붉은 과학전사들, 당과 인민의 혈맥을 끊어버리려 극악무도한 도발을 걸어오는 원쑤들에게 단 이틀만에 150여만명의 참군열풍으로 대답한 절사옹위의 용록한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리겠다고 열광의 함성 터치는 청년대강국의 맹장들…

당이 산악같은 믿음을 담아 열렬히 호소할 때, 불가능이 앞을 막고 원쑤들이 발악해올 때, 력사의 큰산을 넘으며 세기를 주름잡아 비약해야 할 때마다 전투기록장, 그것을 펼치고 엄숙히 맹세하고 자신들을 총화하면서 이 땅의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혁명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세상에 놀도 없는 미덕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

이 땅의 인민은 이렇게 위대한 조국의 력사를 자기 손으로 쓴다. 그 무수한 전투기록장들을 합쳐 당대회라는 력사의 분수령들을 받들어올렸고 천리마시대와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시대, 자주와 번영의 시대를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였다. 이제 우리 당이 손길들어 번지게 될 새 력사의 페지는 천하제일강국,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이다.

바로 지금이다. 충정의 70일전투는 당 제6차대회가 열리였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당을 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30여년을 빛나게 총화하는 책임적인 투쟁인 동시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이 광활한 미래와 최후승리의 대문을 열어제낄 새 력사의 창조자들로 준비되였음을 어머니당중앙에 보고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시각이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높은만큼, 우리가 헤쳐야 할 시련이 그처럼 간고한만큼 우리들 매 인간이 안고있는 시대의 골음도 참으로 벅차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싸우고있는가?

자력자강으로 자기 단위, 자기 부문을 일떠세우고있는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어떻게 벌리고있는가?

날과 달이 흐른다고 누구나 력사와 함께 전진하는것이 아니다. 충정의 전투기록장은 승리의 5월에로 가는 우리의 일력, 위대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찬연히 빛날 우리 당 제7차대회장으로 오르는 계단이다. 그가 누구이든 전투기록장에 새우지 못한 여백이 있다면 이 땅에 5월이 와도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꽃이 피지 않을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모두다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을 창조하고 창출하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더욱 과감히 용틀쳐라!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은 우리들의 영광, 어머니의 기쁨이자 우리들의 무궁한 행복이고 승리이거니 무엇이 아까우랴, 그 무엇 두려우랴.

이 땅에 흘러간 기나긴 나날 우리 수령님들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그 하많은 밤들에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온 인민이라면 심장이 고동치고 살아숨쉬는 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결사의 투쟁으로 이어 당중앙뜨락에 밝아오는 새날의 려명에 자랑찬 위훈의 보고를 실어드리자.

침략의 불구름이 몰려오고 지구가 깨여져나간대도 어머니에게로 달리는 자식들의 대행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이제 만약 원쑤들이 우리 운명의 명줄을 끝끝내 끊어버리려든다면 천만은 핵폭탄되여 징벌하리라.

우리가 새겨가는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은 그대로 증오와 복수의 전투기록장으로 될것이며 원쑤들의 종국적멸망과 조국의 통일을 우리 당에 선물하게 되리라.

만리마의 기상으로 안아온 최상의 로력적선물을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가득히 채우고,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페지들을 새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우리 모두 달려가자.

어머니가 기다리는 승리의 5월, 온 누리에 영광떨칠 당 제7차대회장으로!

리 건

깊이 심어주신 혁명가의 자각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주체58(196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영화창작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1930년 여름 국내에 진출하였던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성원들이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여 서대문감옥에서 옥중투쟁을 벌리고있을때였다.

이 투쟁을 지휘하시던 김형권동지께 뜻밖의 통방신호가 왔다. 그것은 나도 체포되였다, 혁명가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묵숨으로 비밀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방신호였다. 그는 제일 나어린 소조원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의 맹세를 굳게 믿으시였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것만으로는 소조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할수 없다고 생각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에게 지조를 지킴은 혁명가의 초보적인 임무이다, 맡겨진 임무를 결사코 다함이 우리의 본신임무이다, 이제부터 투쟁마당은 감옥이다, 여기에는 탈도 장산 도처에서 압송되여온 선각자들과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을 지피면 앞으로 출옥하여 조국땅 천지에 혁명의 불을 지를것이니 우리는 누리에 불는 불이라는 회람을 보내시였다.

감옥에 갇힌 혁명가에게 있어서 기본임무는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혁명가의 지조를 묵숨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김형권동지의 정신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 어떤 역경속에 놓이더라도 김형권동지의 전절한 투쟁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아 초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용사들이 그 빛나는 혁명정신을 이어받았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았고 놈들의 총포탄에 두팔이 떨어지자 력으로 중기의 압철을 눌러 원쑤놈들을 격멸소탕하는 불멸의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전투규정에는 수류탄이 떨어지면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두팔이 떨어지면 력으로 중기의 압철을 누르라는 조항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는것을 자신의 심장에 새겨진 임무, 혁명전사의 깨끗한 량심에 새겨진 임무로 여겼다. …

혁명임무에 대한 조선혁명가들의 자각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가슴에 새기는 일군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여있었다. 그러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성, 이것은 곧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며 혁명가의 기본징표이라고, 오늘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고 환경도 변하였지만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각성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정신과 넋을 따라배워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 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모든 영화를 100% 성과작으로 만들자면 일군들과 창작가들, 예술인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천만군민이 당정책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새겨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은 오늘도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진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리라!

돌이 얼조각, 백조각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진짜배기일군이 되리라!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이 이런 맹세와 의지로 불타고 이런 정신과 기상으로 높뛰기에 7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당 제7차대회를 광물생산성과로 빛내이도록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리원광산에서 — 현지보도반

혁명의 천리길은 영광의 만리길로 빛난다

만리마시대의 장엄한 봄우뢰인양 충정의 70일전투의 힘찬 북소리가 강산을 진감한다.

천만군민이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끓이며 위훈창조의 철야진군길을 이어가는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천리길에 오르신 뜻깊은 날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유다르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정을 더듬어볼수록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추켜들어야 할 조선혁명의 불변의 기치, 고귀한 혁명정신이 더욱 뚜렷이 안겨오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걸으신 이 천리길로정에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이 우리 당력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배움의 천리길,

이 땅의 누구나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는 길이다.

주체12(1923)년 3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받드시여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단신으로 배움의 천리길에 나서시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보라가 일고 바람이 사납게 불어쳤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알아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에는 일제의 말굽밑에서 신음하는 겨레의 불행과 설움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더 잘 알아야 빼앗긴 내 나라를 다시 찾을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던 때를 추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는 지금에 와서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조선에 내보내준것이 옳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열두살도 되지 않는 자식을 당시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었던 천리길에 홀로 내세운것을 보면 보통성미가 아니였다. 그 성미가 오히려 나에게는 힘으로 되고 밑음으로 되였다.》라고 쓰시였다.

압록강을 건너 천교의 수림을 헤치고 찬바람, 눈보라 휘몰아치는 험한 령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이 천리길은 참으로 멀고도 힘겨운 로정이였다.

그 길에 10대의 어리신 아드님을 선뜻 세우신 김형직선생님, 절로 쉽게 내릴수 없는 용단이였다.

그러나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였기에 일찌기 자제분들께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제힘으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과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이 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줄리는 없다. 집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수 있다.》

이것은 그대로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드팀없는 신조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자력자강의 넋이였다.

지금도 푸르러 설레이는 남산의 소나무를 그려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께 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곤난과 시련을 맞받아나가 나라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김형직선생님의 간곡한 당부가 들려오는듯싶다.

그날에 하신 아버님의 간곡한 당부, 절절한 념원을 심장에 새기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압록강을 건느시여 조국땅 포평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낯익은 거리를 걸으시며 깊은 추억에 잠기시였다.

팔도구에 있는 동무들과 이곳에 오시여 씨름도 하시고 또 언제인가는 포평상점에 들리시여 어머님께서 주신 돈으로 운동화가 아니라 어머님의 고무신을 사가신 일,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어 자주 이곳에 오시여 동신도 전달하시고 비밀우편물과 출판물들을 가져다드리시던 일…

잊을수 없는 그 나날을 더듬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평을 지나 두지동을 거쳐 하산령을 넘어 월만리에서 하루밤을 주무시였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고 험한 오가산령으로 향하시였다.

해발 천여m가 넘는 오가산령은 울울창창한 천연원시림으로 뒤덮여있어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맹수들이 수시로 나타나군 하였다.

그래서 어른들도 혼자서는 감히 이 령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다가 때는 아직 초봄이여서 눈이 키를 넘게 쌓여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험산준령도, 혹한의 칼바람도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눈길을 헤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어떻게 되여 어리신 나이에 천리길을 걸으실 용단을 내리시였댔는가고 문의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람은 뜻이 크고 의지가 강하여야 한다, 뜻이 크고 의지가 강하면 험산준령도, 깊은 강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에 관통되여있는 견절한 투쟁정신이였고 위대한 장군님께 새겨주신 또 하나의 귀중한 정신적재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살을 저며내고 뼈를 깎아내는것만 같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기어이 일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실 원대한 뜻과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으시였다.

배움의 천리길, 정녕 그 길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인민, 민족번영의 위업을 이룩해나가실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의 신념의 맹세가 자욱자욱 빛발치는 거룩한 행로였다.

그 맹세는 그대로 광복의 천리길과 항일대전의 총성으로 이어져 삼천리금수강산에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아왔고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오늘의 행복이 귀중할수록, 누리는 기쁨이 커갈수록 혁명의 천리길로정에 새겨져 빛나는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숭고한 뜻과 애국애족의 발자취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지원》의 뜻을 품으시고 조선의 새 봄을 불러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려 강계의 수천리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락원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이 자주, 선군으로 존엄높은 길이고 자력자강으로 빛나는 길임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에 빛나는 혁명의 천리길은 오늘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행복의 만리길, 영광의 만리길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 온 누리를 진감한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본사기자 김일권

포평땅에 새겨진 못 잊을 이야기

이 땅 천만아들딸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가는 력사의 땅 포평, 이 고장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히 간직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행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주체63(1974)년 12월 어느날 밤이였다.

이날 포평혁명사적지건설총형성안과 사판을 마주하시고 점 하나, 선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주의를 돌리시며 세심히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높이 그리고 더 정중히 모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판을 마주하시고 기념비와 사적물들의 위치와 크기, 형태를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루터에 우뚝 솟아있는 기념탑을 가리키시며 이름을 어떻게 짓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한 책임일군이 《배움의 천리길기념탑》이라고 부르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배움의 천리길기념탑…》

조용히 되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포평일대에 깃든 불멸의 혁명사적들을 포괄적으로 상징하여 부르자면 그 이름을 《포평혁명사적탑》이라고 하는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풍모앞에서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포평거리에 새로 일떠서게 될 소년궁전은 《김성주학생소년궁전》으로, 인민병원은 《김형직인민병원》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였다.

어느덧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라도 쉬실것을 말씀올렸으나 그이께서는 군상도안을 마저 보자고 하시면서 창작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미흡한것이 있으신듯 총형성안과 사판을 거듭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앞으로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답사자들이 찾아오겠는데 여러가지 문화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도 원만히 갖추어 혁명사적지의 군소재지답게 현대적으로 잘 꾸릴데 대하여 거듭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포평땅에 대한 두차례의 현지지도에 이어 또다시 한밤을 지새워가시며 포평혁명사적지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후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적지건설이 진행되는 전기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포평혁명사적지는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유서깊은 혁명사적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진격의 나팔수, 만리마의 기수가 되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자

시대대표정신의 창조, 창출에서 틀어쥔 열쇠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느날 70일전투와 관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만리마시대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 창출할데 대한 숭고한 뜻이 우주와도 같은 무게로 가슴에 실려왔던것이다.

눈에 띄는 성과에 목적을 둘번 했던 자신들을 깨우쳐주신 위대한 스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질수록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창조, 창출에 큰 힘을 넣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 사상에서 나온다.

도당위원회는 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에 화력을 돌이대는것을 시대대표정신창조의 첫번째 열쇠로 틀어쥐였다.

도당위원회는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을 전국에 호소한 단위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례성강청년3호, 5호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우선시하였다. 한것은 이 단위들을 불씨로 온 도에 시대대표정신창조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이 집중되였다.

자체의 선전선동력량은 물론 도와 시, 군들에서 온 력량까지 합세하여 중요단위들은 화선식선전선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활무대로 되였다.

도예술선전대, 도작가동맹위원회, 도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위 성원들이 황철의 생산현장들에 달려와 사상공세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도적인 강연경연을 위한 지구별예선경연장소도 이 단위들에로 옮겨졌다.

도당위원회 과장 김미숙, 부원 김남철,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 강철수, 전명화, 직외강연강사 최세호동무들이 도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벌려나갈 때 시, 군에서 온 당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 룡로자강연강사들도 전투현장들을 순회하면서 집중강연선전으로 대중을 고무해주었다.

강연경연에 대한 심의와 평가도 대중의 심장을 얼마나 달구어주었는가, 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나타나게 하였는가를 놓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분계연선지대,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 례성강청년3호, 5호발전소건설장 등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실효는 참으로 컸다.

지난해에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며 우리 식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의 통장훈을 부른 황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또다시 노도처럼 일떠섰다. 그들은 자강력의 불길높이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에 의거한 주체쇠물을 펑펑 부어내며 철강재증산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명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70일전투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앞장에서 달려나갔다.

이것이 전군의 힘찬 나팔소리, 북소리가 되여 황북전역이 울썽거렸다. 일터와 거리, 학교, 마을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성세, 당정책결사관철의 불도가니로 더욱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되였다.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은 한두명의 일군이 뛰여다니거나 한두개 단위가 솟구친다고 하여 창조되는것이 아니다. 광범한 대중이 총궐기해나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소리치며 일떠서 내달릴 때 더 빨리 창조되는것이다.

도당위원회는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창조를 위한 사업에서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양되게 하는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로 틀어쥐였다.

70일전투기간 혁신적성과를 올리는 단위와 일군들, 근로자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이 온 도를 뒤덮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파감히 벌어지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지난 3월 12일 도급기관 일군들이 강연회를 위해 모인 기회도 잘 리용하였다.

강연내용과 밀접히 결부하여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불러난 수십건의 긍정적인 자료들을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은 그 자료들중에는 조건타발을 앞세우는 일군들을 사리원탄광에 데리고나가 그곳의 벅찬 현실을 보여주고 현지에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일전투총화를 진행한 사리원시당책임일군에 대한 자료도 있었고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성스러운 자각속에 한몸의 아픔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전투를 지휘하다가 현장에서 순직한 곡산군 오리포협동농장 작업반장 박기홍동무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

오늘과 같은 격동적인 시기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스스로 전투원이 되여 헌신하는 수많은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 가두녀맹원들에 대한 자료들도 있었다.

그 다음날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도당책임일군들이 품들여 준비하여 보고시대신 내놓도록 한 록화편집물의 내용들도 참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도안의 70일전투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크고작은 성과들과 소행들을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창조의 소중한 불씨들로 여기고 록화편집물에 반영하도록 한 도당책임일군들의 조치는 앞선 단위들을 더 힘껏 추동하고 새로 혁신자대렬에 들어선 단위와 일군들,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심을 가지고 완강한 추격전을 벌리게 하였다.

대중적영웅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이 발양되는 속에 도적인 70일전투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 의하여 황북땅에서 만리마시대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이 세차게 대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70일전투와 주총화

◇ 70일전투로 들끓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매일, 매주 어김없이 진행되는 일과가 있다.

전투총화!

누구나 《동무는 오늘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앞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정심을 검증받으며 량심의 총화를 짓는다.

그 어느 일터, 어느 단위에서나 볼수 있다. 카렬한 전화의 나날 원쑤와의 격전을 치르고 돌아오는 전호가에서 전투총화를 진행하던 화선병사들처럼 충정의 전투기록장을 앞에 놓고 일별, 주별 사업실적을 엄격히 총화짓는 일군들의 모습을.

오늘 대고조전역들에서 창조되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은 바로 이 비상한 전투총화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 전투총화는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똑똑히 틀어쥐고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그것이 어김없이 집행되고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투총화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다.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전투목표수행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총화하고 넘어가야 한다. 총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음전투의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

전투총화의 의의를 깊이 새겨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항일의 나날 장백현의 깊은 수림속에서는 어느 한 전투에 대한 총화가 진행되였다. 그 전투로 말하면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커다란 전과를 거둔 전투였다. 그러나 전투총화는 위훈에 대한 평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총화에서 한 대원은 단알 세발로 적 두놈밖에 잡지 못한것을 두고 자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귀중한 단알을 허실한것은 그 하나하나의 총알에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동지들의 신랄한 비판은 그 대원으로 하여금 사격술을 높이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사들은 전투총화를 위훈과 공적을 론하기 전에 경험과 교훈을 찾는 계기로 삼았다.

그렇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데 전투총화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우리 당의 전투기록집의 갈피들을 번져보자.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 150일전투…

그 모든 전투들이 승리적으로 결속될수 있은것은 전투총화를 중시하고 그것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추동력, 비약의 도약대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끈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의 70일전투의 일총화, 주총화를 무심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승리의 열쇠가 바로 거기서 마련된다.

◇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투총화에 힘을 넣어 70일전투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별, 주별전투목표들을 예견성있게, 현실성있게 세우고 전투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지도소조들은 일별, 주별성과와 대책정형을 어김없이 따져가면서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장악통제를 강하게 하며 총화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보다 큰 승리를 향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잘해나가야 한다.

전투총화가 실무적인 총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각성시키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전투총화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 경쟁열의를 고조시키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부터가 전투총화를 당에 대한 충정심을 검증받는 계기로 삼고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높은 사업실적을 안고 매일, 매주 전투총화에 떳떳이 참가하여야 한다.

새 기록창조의 비결

천성청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최근년간에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볼 때 증산되고있는 하루 석탄량은 웬간한 규모 탄광의 하루생산량과 맞먹는다.

로력자수도 같고 가동하는 채탄중대수도 차이가 없다.

하다면 기적창조의 불길은 어떻게 타올랐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탄광의 채탄장들에는 관성식적재운반설비가 대대적으로 도입되였다. 그리하여 채탄공 1인당 하루생산량은 종전에 비해 1.5t이나 더 늘어났다. 탄광적으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자면 하루 700t의 석탄을 더 생산해야 했다.

그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두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갱 갱내 삭도운영을 정상화하고 채탄공 1인당 하루 2t의 석탄을 더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면 얼마든지 높이 내세운 전투목표를 돌파할수 있었다. 3갱의 경우 우리 나라 탄광부문적으로 처음 갱내 석탄운반삭도를 놓다보니 운영상에서는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1파리 삭도바가지가 짐을 실은 다음 궤도를 따라 기본운행로선에 들어설 때 자주 탈선되는것이 문제였다.

탈선되였던 삭도바가지들을 기본운행로선에 올려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차나 탄차의 탈선복구시간보다 더 길고 품이 들었다. 삭도운영에 이렇게 품을 들일바에야 다시 전차를 리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일군들은 삭도운영정상화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들어고칠 부분은 대담하게 들어고치고 운영자들의 표준조작법도 완성해나갔다.

그리하여 3갱에서는 삭도운영이 정상화되게 되였다. 삭도운영에서 제기되던 문제들이 풀려나가니 3갱의 생산이 쑥쑥 올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석탄생산이 하루평균 2배로 뛰여올랐다.

채탄공 1인당 하루 2t의 석탄을 더 생산하도록 하는 문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참모부가 전적으로 맡아나섰다.

참모부에서는 채탄중대별 하루실적을 기준으로 경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한개 갱단위를 대상으로 채탄중대호상간 일정한 기간 시범적인 경쟁을 조직하였더니 탄부들의 전투적사기가 높아져 누구나 증산목표를 돌파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탄광에서는 탄부 1인당 2t의 석탄을 더 생산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시작되였는데 탄부들의 하루일을 그날로 실속있게 평가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니 갱들의 전반적생산이 쑥쑥 올라갔다.

탄광에서는 지금 종전의 로력으로 700t이 아니라 1 000t이상의 석탄이 더 생산되여나오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탄광의 현실은 말해주고있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들어쥐고 증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면서도 석탄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 역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드높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당일군들의 모습

먼저 관심한 문제

70일전투가 시작된 날 증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비상협의회에 참가하라는 련락을 받았다.

중요한 문제가 토의될것이라는 제나름의 생각을 알세웠던 일군들은 놀랐다.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였기때문이였다.

군당책임비서 리영진동무는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70일전투의 포성이 울린 지금 군앞에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끝난 후 군당책임일군은 자신이 직접 앞장에 서서 악기를 구해왔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떨쳐나섰다. 얼마후에는 군기동예술선동대에 손풍금을 비롯한 악기들과 출력이 높은 증폭기, 성능이 좋은 축전지가 새로 갖추어졌다.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새 솜옷도 해결해주었다.

이런 사업은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로 하여금 협동벌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게 했다. 그 실효는 전례없는 영농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군당위원회가 사상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먼저 관심을 돌린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현장치료대의 구급약품명세

3월초 어느날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70일전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여온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협의회장에 탄광병원들의 원장들도 앉아있었던것이였다. 그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이제 토의하게 될 문제에 대하여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윽고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원일동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전투가 치렬해질수록 우리 일군들이 탄부들의 건강에 더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치료대를 조직하자는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이였다. 70일전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바로 현장치료대조직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하니 모두들 충격이였던것이다.

다음순간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당책임일군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구급약품명세를 상세히 알려주는것이였다. 작업도중 뜻밖에 타박상을 입거나 피부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고 계절적영향으로 대장염을 앓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으니 현장치료대가 이러이러한 약들을 꼭 가지고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당책임일군의 모습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자기의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당책임일군이 작성한 구급약품명세, 이 하나의 세부를 놓고서도 70일전투기간 매일 계획을 평균 130%이상 넘쳐 수행하는 이곳 련합기업소의 높은 생산실적의 바탕에 무엇이 놓여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충정의 전투장마다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각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간마다, 날마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전력생산의 동음 높이 울리며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무봉양수장에서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신양양수직장에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종전보다 더 많은 물을 퍼올리고있다.

보수부문의 로동자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 수차효률을 높이고 새로운 보수방법을 받아들여 한 호기의 발전기주기보수를 계획보다 9일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이들은 다른 발전기대보수기일을 보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밑에 회전자축가공지구를 창안제작하고 새형의 효률높은 수차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발전설비보호장치들의 믿음성을 한단계 높이고 운영에 필요한 장치들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면서 전력생산을 높이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소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직장별, 호기별, 교대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얼마전에는 열생산직장에서 조작공들호상간 경쟁이 조직되였다. 일군들은 일별, 주별총화를 알심있게 짓고 평가사업을 방법론있게 하여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모든 직장들에서는 설비를 30분에 한번씩 점검하고 불량개소를 찾아내여 사전에 퇴치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기술혁신사업도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하차직장, 열생산직장에서는 하차설비의 낡개말단장치를 제작도입하고 석탄분쇄기의 출구도판을 개조하였다. 4.15기술혁신돌격대와 전기직장에서는 공기랭각제통을 개조함으로써 발전기의 호기당 출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상반년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난다

개천철도국에서 8일까지 19명의 기관사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집단안에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려 기관사들속에서 증송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나날이 높아가는 경쟁열풍속에 신의주기관차대 기관사 엄창복동무가 제일먼저 상반년 짐나르기계획을 114%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를 계기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철도국의 모든 역, 대, 소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3월 8일까지 신의주기관차대에서 58명의 1.4분기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된데 이어 개천기관차대, 정주기관차대, 회천기관차대들에서도 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늘어나 철도국적으로 근 100명의 수송전사들이 그 영예로운 대렬에 들어섰다.

수송전사들의 경쟁열, 투쟁열이 높아가는 속에 지난 9일에는 개천객화차대가 1.4분기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배건조, 발전능력 조성사업 힘있게 추진

령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70일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총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5 000t급화물선건조, 석탄가스화에 의한 1 000kW발전능력조성, 태양및전지판을 동력으로 하는 3척의 려객선건조, 연혁소개실과 체육관건설 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있다.

5 000t급화물선의 건조실적은 80%계선에 이르렀고 석탄가스화발생장치는 조립이 끝났으며 연유를 전혀 쓰지 않는 3척의 려객선은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공장의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수행할 목표들을 통이 크게 세우고 무조건 끝내기 위한 립체적이며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대상별전투지휘부가 조직되고 기술력량이 보강되였으며 자재와 동력을 비롯한 보장대책이 면밀히 세워졌다.

5 000t급화물선건조전투를 중심고리로 정한 공장일군들은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공세를 들이대는 한편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종전에 비하여 선체조립속도를 1.5배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낮에 밤을 이어 불꽃튀는 돌격전을 벌려 선체조립을 끝냄으로써 화물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수 있게 하였다.

특혜운성의 일군들이 공장에 자주 내려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주고 자재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석탄가스화발생장치와 발전기개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현지에서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당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충정으로 하여 일터마다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강원도의 협동농장들에서 거름실어내기전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농촌들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근 35만t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였다.

통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에 로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에 거름실어내기전투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자산, 명고, 로상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땀흘려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포전마다에 듬뿍듬뿍 실어넣긴을 비롯하여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20일 남짓한 기간에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로산협동농장과 지탄협동농장을 비롯한 철원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생산된 거름을 빠른 시일안에 포전에 실어낼 계획을 세우고 거름실어내기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현재까지 수만t의 거름을 실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금강군과 안변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촌들에서도 70일전투의 나날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애국의 열의밑에 많은 땅의 거름을 매일 계획보다 앞당겨 논밭에 실어내고있다.

삼지연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자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군에서는 토지개량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혜산시의 도급기관들과 협동하여 수백정보의 감자포전들에 대한 흙깔이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

농장들의 작업반들과 분조들에서는 집짐승배설물과 풀거름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내는것과 함께 너탄생산을 다그쳐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고있다.

군의 공장,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 구운흙과 구들재를 밖에 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돼지목장들과 개인세대들에서 감자농사에 필요한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각종 뜨락또르들과 련결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다그쳐 올해 감자농사에서 큰 은을 내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현지보도반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일념안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뚜렷한 과학기술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가는 참된 과학전사들

2.16과학기술상수상자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대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높이 온 나라가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수여식이 엄숙번째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함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2015년을 장엄한 투쟁과 승리와 영광의 해로 자랑스럽게 빛내이는데 뚜렷한 자욱을 새긴 과학자, 기술자들, 교원, 일군들을 조국은 시대와 인민앞에 값높이 내세워주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뚜렷한 과학기술성과들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앞장에서 철사관철해가는 이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과학전사들이다.

유훈관철전의 맨 앞장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 크게 공헌한 전력공업성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심사원 박찬영동무와 소장 지대학동무를 비롯한 설계집단의 설계원들이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설계를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설계집단안의 모든 설계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마를줄 모르는 지혜를 안겨주었다.

그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였기에 이들은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실천으로 기존방식에 비해 콩크리트타입량과 굴착량을 수십만㎥나 줄이면서도 공사속도와 언제의 안전성을 훨씬 높일수 있는 새로운 언제설계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앞당겨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오늘은 영광의 단상에 자랑스럽게 서게 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요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수여식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들의 눈시울은 또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은 비록 방대하고 어름한 사업이지만 당의 부름에 충직한 김철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CNC화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첨단돌파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강력한 기술집단, 자립경제의 든든한 뒤받침이 있기에 능히 해제낄수 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이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간부한 그 음흔을 지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리과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드디여 주요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로력과 전력, 원료, 자재를 절약하고 강판의 질과 생산성을 훨씬 높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마련하였다.

어찌 이들만이라.

우리 혁명의 만년대보인 구호문헌들의 글자의 퇴색을 막고 영구보존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확립하고 전국각지에 보존되여있는 수많은 구호문헌들에 도입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의 한귀성, 한성철, 전광혁동무들을 비롯한 수상자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전자요소의 국산화를 실현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반도체연구소의 수상자들도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애로와 난관을 뚫고헤치면서 탐구의 길에서 끝끝내 성공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우리 식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린 국가과학원과 평양메기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당정책을 어떻게 받들고 관철해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그이앞에서 공장의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해설을 베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던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실장 조석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애국자, 당정책옹위전의 전초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석철동무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희천발전소통합생산체계를 실현한 김일성종합대학과 전력공업성,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들을 만나보아도, 세계적수준의 금강석추환의 국산화를 실현한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련관부문의 일군들을 만나보아도 눈부신 첨단과학연구성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세계를 티티고 올라설수 있는 우리 식의 국산화된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으려는 불타는 열의가 피끓는 가슴마다에 넘쳐흐르고있었다.

우량한 알용탑인 정주탑을 육종하고 생산체계를 확립한 농업과학원 가금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기술적지표들이 개선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개발하여 수도의 긴장한 려객수송문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한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레루맞댐용접기에 의한 이음목없는 철길부설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도입하여 철도수송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철길현대화에 이바지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과 평양철도종합대학, 철도성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들도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비상한 애국의 열의를 안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철사관철해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이번에 2.16과학기술상을 받은 대상과제들가운데는 기초과학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있다.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의 《레이자빛과 금속나노재료의 비선형광학적호상작용에 대한 연구》와 리과대학의 《비선형복잡계에서 카오스와 프락탈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국제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기초과학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복잡계리론분야에서 미해명문제로 되여있는 카오스적인 거동과 자체조직화과정의 물림새를 새롭게 해명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한 리과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성과들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수십건 게재되였으며 국제학술토론회들에서도 발표되였다.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금속나노재료에서의 선형 및 비선형광학리론을 개척하고 체계화한데 기초하여 고속및통신기술, 초고속분광기술, 고감도수감재료제조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개발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런 성과로 하여 김광현동무는 세계과학원 청년회원, 리론물리학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연구소의 회원으로 선출되였다.

기초과학부문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기초과학부문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련속생산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장, 기업소들의 통합자동화체계를 확립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들의 성과는 자동화, 무인화를 완벽하게 실현할수 있는 체계구축방식을 우리 식으로 해결한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에 대한 설계와 하부구조를 완성하고 중앙병원들과 전국의 모든 도, 시, 군인민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망을 형성하여 의료봉사의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직접대상의료봉사체계와 함께 첨단의료봉사체계인 간접대상의료봉사체계를 확립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 ※

2.16과학기술상수상자, 이 영예속에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앞장서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한 2.16과학기술상수상자들은 자신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최신과학기술을 대담하게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참된 과학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신심과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박 현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에서

바뀌여진 전투계획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아래 각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70일전투의 첫날에 상반년계획을 5월까지 앞당겨 완수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후 전국의 모든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상반년계획을 다시금 한달이나 앞당겨 4월에 끝낼 신심드높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23일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의 일군들은 각지 의료기구공장들의 계획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하는것으로써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킬 결심을 다졌다.

며칠후 보향산의료기구공장에 나갔던 국장 리영철동무는 뜻밖의 사실앞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병으로 몸져누웠던 사람들과 멀리 친척집에 나들이를 갔던 사람들모두가 70일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공장에 달려나와 교대를 이어가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국장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것은 2월말경으로 1.4분기계획을 끝낸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달라는 공장지배인의 절절한 호소였다. 국장은 그날중으로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상반년계획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해주었다.

큰 단위, 작은 단위 따로 없이 모든 공장들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고 당 제7차대회장에 펫펫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관리국의 일군들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안고 사업조직을 파고들어 내밀었다.

가위, 권세트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평양의료기구공장은 크지 않은 단위이다. 지난달 계획을 2월 25일까지 끝낸 공장에서는 15일현재 3월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공장의 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2월 23일 저녁 평양의료기구공장으로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의 일군들이 찾아왔다. 사연을 알게 된 지배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것은 관리국의 일군들이 이곳 종업원들의 바쁜 일손을 도우려고 왔기때문이였다.

그후 매일 저녁 찾아와 연마, 조립 등의 생산공정을 맡아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은 공장의 종업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분발하여 계획수행에 떨쳐나섰다고 한다. 지배인은 어느 한 설비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즉시 시안의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끝끝내 해결해준 관리국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에 고무된 보향산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상반년계획을 4월까지 앞당겨 끝낼 확고한 신심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비상히 높아진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에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투기간에 다시금 바뀌여진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아래 모든 공장들의 전투계획과 날로 높아지는 생산실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5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으로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비약의 폭풍일으키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3월 중순,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남쪽의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찬 공기의 영향을 두세차례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정 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높을것으로 보고있다.

◎ 3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

‖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4~10㎜로서 평년보다 약간 적겠으며 해비침률은 3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평균 60%정도로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이른콩모씨뿌리기를 제때에 하며 원그루콩모와 밭랭상모의 씨앗준비, 모판만들기를 다그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른콩모씨뿌리기를 잘하자면 우선 모판을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판차단재료로 벼겨나 구멍이 뚫린 박막, 톱밥 등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제바닥흙과 건밭흙, 부식토를 7:1.5:1.5의 비률(부피)로 혼합한 다음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정당 240g정도 섞어 모판흙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단재를 깔지 않을 경우에는 모판수평을 고루고 벼모판종합영양제를 10배정도 되는 보드라운 건밭흙에 섞어 뿌려야 한다.

특히 모판pH를 4.5~5정도로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천알질량과 모내는 시기 일나이를 고려하여 이른콩모의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며 랑망기로 씨앗에 붙어있는 수염이나 이삭가지들을 반드시 제거한 다음 키계로 씨앗을 고루 뿌려야 한다.

또한 모판에 바람막이바자를 잘 치며 2중으로 박막을 씌우고 나래를 덮어 모판온도를 10℃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원그루콩모와 밭랭상모의 씨뿌림시기를 바로 정하고 씨앗준비, 모판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소식재배를 하면서 씨앗소요량이 줄어든 조건에서 소금물고르기를 하여 잘 여문 씨앗을 골라 심어야 한다. 또한 일찍 씨앗을 뿌리는 조건에서는 반드시 싹을 틔우거나 물에 불군 씨앗을 뿌려야 한다.

씨앗을 제때에 뿌릴수 있도록 모판구획잡기와 모판만들기를 다그치며 재로 친 흙에 부식토를 30%정도 섞어 모판흙으로 쓸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밀, 보리농사에서는 영양단지모와 이식재배모옮겨심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가을밀, 보리밭에 되살이비료주기와 다져주기를 잘하며 모판에서 겨울난 가을밀, 보리영양단지모, 이식재배모옮겨심기를 다그쳐 끝내야 한다.

봄밀, 보리이식재배모판과 단지재배모판관리를 잘하여 모를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모판온도가 낮에 17℃이상 높아지거나 밤에 3℃이하로 낮아지지 않게 박막과 나래관리를 잘하며 모판토양습도를 65~70%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정지대에서 랭상처리를 잘하고 적기에 옮겨심으며 고지대에서 싹틔우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정지대에서 감자랭상처리를 잘하자면 종자를 중간올종과 중간종, 늦종을 기본으로 선택하여 긴싹모로 길러내야 한다.

감자심기는 땅속 5㎝층 토양온도가 6℃정도 보장되는 시기인 3월말~4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는 감자싹틔우기를 잘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 진행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가 1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성원들과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톨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전위들을 영예롭게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꾸바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정형이 총화되였으며 올해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웰남과 말레이시아에 갔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귀국

웰남에서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던 김동선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15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꾸바근로자중앙대표단 귀국

울리세스 길라르데 데 나씨미엔또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근로자중앙대표단이 15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봉원익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톨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장에 불을 다는 진군나팔소리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를 통하여 인민들과 친숙하여진 영화예술인들이 근로자들속에 직접 들어가 공연활동을 벌려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는것은 혁명적예술인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열렬한 호응, 재청 또 재청

영화예술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는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진열장에 날개라도 돋친듯 순식간에 퍼졌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시기 창작된 영화들과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경희극 《백두의 청춘들》의 주단역에 출연한 배우들을 직접 전투현장에서 만나보게 된 전투원들의 감흥은 류다른것이였다.

인민배우들인 신명옥, 리경희동무들과 공훈배우들인 리경훈, 김희옥, 문성철동무들을 비롯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평양영화음악촬음소의 관록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의 공연은 첫시작부터 전투원들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결코 예술적기량이 풍부해서만이 아니였다.

혼국 《뜨거운 마음》, 《잠들수 없다》와 대화시 《멸사복무》 등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은 전투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과 아름다운 정신세계, 력사적인 7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당과 온 사회를 전례없는 대중적열의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의 최전방에서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이 올리는 장엄한 투쟁의 진군나팔소리가 대고조적전장들을 세차게 진감시키고있다.

전투장의 현실을 방불하게 그대로 무대우에 펼쳐놓은것이여서 그처럼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주었던것이다.

하기에 공연의 90분간은 전투원들의 열렬한 호응과 재청 또 재청의 련속으로 흘러갔다. 이것은 그대로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전체 전투원들의 투쟁열, 혁명열의 거세찬 분출이고 뜻깊은 5월의 경축광장에 펫펫이 들어서고야말 신념과 의지의 폭발이였다.

하나의 숨결, 하나의 마음

이들의 하루하루는 단순히 예술선동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경제선동의 나날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한전호에서 전투원들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그들과 한가정, 한식솔이 되는 과정이였다.

경제선동대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였다. 공연을 마치고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전투원들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말했다.

《사진이라도 남겼으면…》

이 말에 경제선동대원들모두가 무릎을 쳤다.

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서로 기뻐하는 혁신자들의 맑은 모습을 뒤에 남기고 이들은 현장을 떠났다.

전투현장뿐만아니라 혁신자들의 집들도 찾아가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안겨준 박정택, 김성철, 조순임동무들을 비롯한 경제선동대원들의 뜨거운 진정은 전에 비해 전력생산을 5%나 장성시킨 이곳 로동계급의 로력적성과로 이어졌다.

정녕 경제선동의 순간순간은 5월에로 향한 하나의 목표를 안고 마음도 숨결도 심장도 전투원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어찌 대중의 심장을 울리지 않을수 있으랴.

연출가 김천동무의 구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영화예술인들만이 아닌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투쟁기풍과 창작창조본때도 함께 읽을수 있었다.

대고조진군의 진두에서 높이 울리는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노래소리는 그대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기적과 위훈창조의 나래를 펼쳐주는 격동적인 진군나팔소리였다. 지금 이 시각도 시대의 박동을 더해주는 이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대고조적전장들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1선참호에 선 전투원들

철도성예술선전대 예술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끊임없이 흘날리는 용접불꽃들, 팡팡 울리는 무쇠마치소리, 부분품들을 쉬임없이 나르는 천정기중기…

말그대로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제관직장 전투현장이였다. 육중한 기관차의 자태가 시간이 다르게 드러나는 이 전투장에 자력자강의 거세찬 동음과 함께 또 하나의 힘찬 포성이 울리였다. 그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심장에 기적창조의 불길을 끊임없이 지펴주는 철도성예술선전대원들의 힘찬 노래포성이였다.

이들에게 무대는 따로 없었다.

몇명씩 소편대를 꾸어 기대들옆에서 박력있는 경제선동을 벌려나가는 이들에게는 용접기에서 튕어져나오는 화광이 곧 조명이였고 시간이 다르게 완성되여가는 《붉은기》호전기기관차가 그대로 배경이였다.

로동자들이 있는 곳마다 노래소리가 울려퍼졌고 노래소리 울리는 곳마다에서 기대들의 동음 더욱 힘차게 울려퍼졌다.

로동자들과 예술선전대원들사이거리는 불과 수m.

맡은 일에 온넋을 쏟아붓고있는 로동자들 누구도 예술선전대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수 없었다. 하지만 노래소리는 전류가 흐르듯 로동계급의 심장속으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포탄이 우박치는 전호가에서 울려퍼진 화선악기소리가 원쑤격멸의 뢰성으로 이어졌듯이 불꽃튀는 전투장을 진감시키는 예술선전대원들의 힘찬 노래포성은 그대로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하루계획 120%로 넘쳐 수행!

그러나 누구도 알수 없었다. 마이크없이 그것도 기대들의 동음울리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가 얼마나 힘에 부치는것인지…

박일남, 김순정, 전세훈, 김혜성, 김정길, 인영선, 한은철…

무대우에서 공연하던 때보다 육체적부담은 몇곱절 컸건만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마냥 넘쳐흘렀다. 공격전의 맨 앞장, 1선참호에 선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다는 사상전의 명중로성을 높이 울려가는 긍지와 보람이 가슴마다에 차넘쳤다.

본사기자 조향미

힘있는 경제선동은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부르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현지보도반

직관선동의 위력과 전력생산성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전력생산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게 하는 정신력폭발에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틀어쥐고 내밀고있는 직관선동은 참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관선동은 직관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련합기업소정문에 들어서니 첫눈에 안겨오는 속보판과 생산현장입구에 전시된 서예작품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충정의 70일전투에 나의 열정, 지혜, 온넋을 다 바쳐》, 《자강력의 강자들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만리마의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전하는 힘있는 글발들이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소리, 생산의 거세찬 열풍을 느끼게 하는데 전문가들의 솜씨라고만 생각했던 수십편의 서예작품들을 종업원들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니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2월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한 기세드높이 3월에도 70일전투목표를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청년직장의 한 로동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라는 글발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글발을 보면 혁명의 전세대들이 우리에게 넘으로 이어준 자력갱생의 참다운 진리가 되새겨진다. 당이 제시한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기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없다는 자각으로 심장이 불타오른다.

이것이 어찌 새 세대 청년로동자 한사람의 심정뿐이랴.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해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중시하고있는 직관선동은 이렇게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열의를 백배해주며 전력생산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김성룡

과학기술중시에 자력자강의 근본담보가 있다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 더욱 기세충천하여 내달리는 단위들중에는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도 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파감히 전개되는 속에 이 단위로는 자력자강의 열쇠를 틀어쥐고 제힘으로 일떠서 힘차게 전진하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오늘의 70일전투는 원쑤들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보란듯이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자력자강의 대진군이다. 하다면 지난 시기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 거의 주저앉다싶이 하였던 이 사업소가 다시 일떠서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힘있는 단위로 되고 70일전투의 불길속에 그 위력을 더욱 높이 과시하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를 통해 해결한 열, 백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와 같은 비생산단위들에서는 생산단위들에서처럼 과학기술중시를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내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편향들도 없지는 않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과학기술은 어느 단위, 어느 일터에서나 중시하여야 한다. 큰 공장이든 작은 기업소든, 생산단위이든 비생산단위이든 제힘으로 일떠서서 제발로 걸어나가려면 예외없이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과학화, 정보화의 성과를 어디서부터 도입하겠는가 하는 과학기술중시의 중심고리를 옳게 정하는것이다.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성장도표를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서서히 도약한것이 아니라 사업소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적인 비약을 이룩한것이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들이 과학기술중시를 자력자강의 담보로 내세움에 있어서 그 중심고리를 옳바로 정하고 드세게 내민데 있다.

오늘 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놀라와하는것이 과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사업소의 경영관리체계이다.

운행조직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들에 대한 연유공급 지이는 장거리운행중에 있는 륜전기재들까지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지휘할수 있는 과학화된 사령지휘체계는 불수록 희한하다.

그뿐이 아니다. 륜전기재들의 수리 및 점차도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하고있으며 하루사업조직과 총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활동이 사업소구내망을 통해 이루어지고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이런 일본새는 보장부서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한해서도 다를바 없었다. 경영관리체계가 바로서있지 않아 련관부서들간 호상협동이 잘되지 못하고있었고 그로 하여 경영관리에서는 여러가지 빈틈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사업소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어쩔수 없는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배인 리은철동무는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하루에도 수십대의 륜전기재들이 류동하고 종업원들의 대다수가 매일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독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과학적인 경영관리체계를 세우는것이야말로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궈세울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고리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쳤다. 리은철동무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사업소구내망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모두가 찬성했던것은 아니다. 당장 급한 륜전기재를 보장하기도 헐치 않은데 사업소구내망을 형성하는 사업까지 벌려놓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업소의 대부분이 운전사들과 수리공들인데 어떻게 자체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겠는가, 우리 사업소야 차사업소인데 수리정비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고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리은철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을 외면하면 기술의 노예가 되고만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언제 가도 제힘으로 일떠서서 걸어갈수 없다. …

지배인의 열렬한 호소는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사업소의 구내망을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였다.

리은철동무는 자신이 직접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도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교육기관들 그리고 해당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과학기술적인 문제들도 해결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운행길에 올라 사업소의 륜전기재들이 다니는 로선들에 대한 현지료해를 진행하고 도안의 도로들은 물론 다른 지방의 도로들의 상태와 지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마련한 귀중한 그 모든 자료들과 함께 사업소의 륜전기재들에 대한 기술성능과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까지 반영된 종합적인 경영관리프로그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과학화, 정보화된 새로운 경영관리체계가 단위의 사업을 어떻게 일신시켰는가를 보기로 하자. 륜전기재들의 기술적성능에 기초하여 속도와 달린 시간을 놓고 운행중에 있는 차들의 위치와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장악할수 있게 됨으로써 사령지휘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게 되였으며 점차합격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륜전기재들만 운행하게 하는 체계가 세워져 모든 륜전기재들에 대한 애호관리기풍이 자연히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모든 차들의 표준성능과 운전사들의 자검자수정형, 기술기능수준을 대비적으로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업의욕을 최대한 불러일으키는데서도 효과적이였다.

그전에는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륜전기재들에 대한 연유소비량측정도 어림짐작, 눈짐작으로 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이후로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고 일별, 월별로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진행되였기때문에 연유소비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어기서 놓치지 말고 특별히 강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업소경영관리체계의 과학화, 정보화가 결코 사업소의 면모만 일신시킨것이 아니라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방침관철을 위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업소에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는것이다.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사업소구내망구축과정은 이들에게 있어서 인재의 갈증을 벼지리게 체험하고 어디서나 요구하는 인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자체의 힘으로 키워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 나날이였다.

우리 사업소에 필요되는 인재도 우리자체로 해결하자,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막히는데가 없는 인재로 준비하자.

이것이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심이였다.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운전사도 수리공도 누구라할것없이 학습하는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세워진 학습계획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운행을 끝마치고 휴식하는 여가시간에도 학습하는 기풍이 점차적으로 확립되였다.

사업소에 확립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보여주는 한가지 좋은 실례가 있다.

사업소에서 명절과 휴식일마다 진행되는 체육경기들에는 류다른 종목이 포함되군 하였다. 그것은 누가 더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작업반별이어달리기경기였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될가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던 종업원들이 사업소에 학습열풍이 불면서 모두가 콤퓨터를 다룰수 있게 준비되어갔으며 나중에는 승부를 가르기가 헐치 않게까지 되였다.

오늘날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는 도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업소로, 인민생활향상에서 단단히 한몫하는 단위로 인정받고있다. 수많은 각종 륜전기재들이 100% 만가동하고있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기술기능수준을 높은 단계에서 소유하고있다. 70일전투에서도 이들은 과학기술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업소의 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철야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의 사업을 놓고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어제날 주저앉았던 단위도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도입할 때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설수 있으며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력자강의 힘있는 지렛대라는것이다.

구호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구호로가 아니라 실지 사업과 생활에 실천으로 구현하는 여기에 자력자강의 튼튼한 담보가 있다. 무슨 문제이든지 제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체질화, 습벽화하고있는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업기풍, 생활기풍에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기풍이다.

어느 단위에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전기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 과정을 보기로 하자. 사업소에는 적지 않은 설비들이 항시적으로 가동하고있어 많은 전기가 요구된다. 이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많은 고심을 하였다. 결국 용량의 태양빛전지판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전력이 나오지 못하는것이였다. 종업원들속에서는 태양빛전지판의 개수를 더 늘이자는 의견과 설비의 가동률을 낮추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리은철동무는 문제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과학적인 자료와 계산을 통해 설치한 태양빛전지판이 겨울철조건에서도 자기 성능을 원만히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문제해결의 방도라고 생각한 리은철동무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다.

그런 과정에 얻어낸것이 태양빛전지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보장해주면 효률을 높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이였다. 시험적인 단계를 거쳐 그 착상의 정확성을 확인한 리은철동무는 즉시 종업원들과 함께 태양빛전지판의 뒤면에 발로수지로 보온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예견했던대로 좋았다.

이런 실례는 많다. 추운 겨울에도 이곳 사업소는 어디라없이 훈훈하여 종업원들은 물론이고 먼거리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운전사들에게 더없이 아늑한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이것 역시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리은철동무를 비롯한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좋은 기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사업소건물의 난방을 보장하는 무동력보이라를 개조하던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개조된 보이라의 성능을 놓고 그만하면 괜찮은것으로 만족해하고있을 때 지배인 리은철동무의 욕심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리은철동무가 보이라에서 나오는 재속에 채 연소되지 못한것들이 쉬여있는것을 목격하게 된 때부터였다. 비록 보잘것없는것이라고 하여도 한달동안, 온 겨울동안 그렇게 채 타지 않은 석탄들을 모아놓으면 그 량은 결코 작은것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리은철동무의 창조적사색에 불을 달았다.

그는 즉시 열관리공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일도 하고 경험도 들어보는 과정에 지배인은 하루석탄소비량에 비해 화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보이라의 원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연구하고 사업소의 실정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그는 화실면적과 함께 화구도 3분의 1로 줄이고 여러겹으로 된 보온장치를 설치해주면 열효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보이라는 다시 개조되였고 결과 그전에 비해 석탄소비량을 60%나 줄이면서도 열효률을 몇배나 높일수 있는 무동력보이라가 새로 설치되게 되였다.

열관리공들의 작업이 한결 헐해진것은 물론이고 석탄소비량을 훨씬 줄이면서도 2층으로 된 청사의 실내온도를 이전보다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니 이것이야말로 펑먹고 알먹고 동지럴어 붙이는 격이 아니겠는가.

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차사업소라기보다 무슨 과학연구기관처럼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독특한 착상과 설계로 자재와 로력 등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도 자연에네르기를 최대한 리용할수 있게 설계된 사업소건물이라든가 자연호롱식으로 사업소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게 설치된 상수도시설도 다 이런 면밀한 과학기술적타산에 기초하여 마련된것들이다.

이런 경험을 배우려고 7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오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소를 그칠새없이 찾아오고있다. 물론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주는 경험도 귀중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이들의 사업기풍, 투쟁기풍이야말로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 *

언제인가 사업소의 정보화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던 전문기관의 연구사들을 크게 놀라게 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들이 높이 세운 정보화실험의 목표였고 다른 하나는 구내망에 구축된 방대한 자료기지였다. 자동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수경온실의 건설, 록색전축을 지향하는 보조청사들에 대한 개건, 운전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업관리를 보다 세분화할수 있는 높은 단계의 경영관리체계의 실현…

지방의 크지 않은 사업소가 내세운 전망이라고 볼 때 놀라지 않을수 없는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소구내망에 구축된 방대한 자료기지들을 보면서 이들은 그것이 결코 먼 후날의 일이 아님을 확신할수 있었다. 그도그럴것이 교통운수부문의 자료들은 물론 전력, 건설, 농업, 체육, 보건, 문학예술 등 각이한 분야의 다방면적인 자료들이 꽉 들어찬 사업소구내망의 자료기지는 목과 심도에 있어서 놀랄만 한것이였기때문이다. 더욱 감탄할만 한것은 이 자료기지의 갱신주기가 매우 짧다는것이였다.

《진보하지 않는것은 퇴보하기마련입니다. 순간도 멈춰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부단히 높이 세우고 배우고 또 배우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이 목표는 앞당겨 점령될것입니다.》

지배인 리은철동무의 말이였다.

그 말을 확증이라도 하듯 지금 사업소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는 자력자강으로 안아오는 자랑찬 열매들이 계속 궁지높이 기록되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보답과 의리의 선물들이 가득 차넘칠 영광의 5월에 이들은 떳떳한 보고를 안고 70일전투의 승리자로 자랑떨칠것이다.

왜냐하면 제힘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보검으로 틀어쥔 자력자강의 강자들이 있는 곳에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우렁찬 발구름소리만이 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강진형
김성민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체육관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무산군에서

함경북도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함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무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체육관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군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체육관건설을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군당책임일군이 현장에 자주 나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행시키도록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즉시 세워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지붕형식도 새롭게 하고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공사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군의 공장, 기업소들과 녀맹조직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해간다는 긍지를 안고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군의 인민들도 체육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밑에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열흘이상 앞당긴 유기광물질알비료생산준비

명천군에서

명천군에서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더 많은 대용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유기광물질알비료원료확보 및 가공을 종전에 비해 열흘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신이 이룩되였다.

군일군들은 지난 시기 군에 흔한 유기광물질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유기광물질알비료를 밀비료와 일덧비료로 리용함으로써 강냉이수확고를 정보당 1~1.5t더 높인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 이 비료를 수천t생산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뜻대로 70일전투를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온 군을 유기광물질알비료원료확보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최근 3일동안에만도 700여t의 진거름과 집짐승배설물, 갈탄버럭을 수집하고 규조토, 린회토를 확보하였다.

군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는 원료가 확보되는족족 잘 말리워 분쇄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결과 수천t의 유기광물질알비료원료확보 및 가공을 지난 시기에 비해 열흘이상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70일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어로공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에서—

세차게 타번지는 강계정신창조자들의 충정의 불길

조기조업을 위한 본격적인 립체전

흥주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흥주청년3호발전소가 자기의 자태를 완연히 드러내며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사량의 20%정도에 머물러있던 발전소건설은 현재 90%계선에 도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충정의 70일전투를 벌림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흥주청년3호발전소 조기조업을 70일전투목표에 반영하고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였다.

도안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정신을 굳게 믿고 50기중기, 수문기중기, 휘수구권양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을 도자체의 힘으로 만들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들을 주요단위들에 파견하여 설비제작전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즉시 대책을 세우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발전소현장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도, 진속품공사도 립체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혁명적인 구호를 언제 기둥들에 써붙이고 힘있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포성으로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켜나갔다.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공사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발전설비설치를 위한 하부구조공사, 수문조종실타입공사, 대상설비생산단위들에서의 수문제작과 각종 설비생산, 송전선을 늘이기 위한 철탑공사 등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어려운 전투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는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전투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드높은 실적으로 이어져 현재 수문제작은 95%,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제작은 80%계선에 도달하였으며 건축공사와 송전선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조기조업의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그들이 걷는 길

송원군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난해 11월, 비닐박막덧집속에서 시작된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골조공사가 드디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지금은 밤 11시. 우리는 장자강의 불야경속에 또 하나의 불야경을 이룬 이곳 5층짜리 기본건물우에 서있다. 새로 일떠서는 체육관쪽도 온통 불바다이다. 자정이 가까와오지만 불도가니마냥 끓고있다.

대낮같이 밝은 체육관 2층에서는 계단식관람석콩크리트치기가 한창이다. 좁은 출입구로 진물의 량쪽에 배치된 콩크리트혼합장에서도 백열전이 벌어진다. 거세찬 동음속에 혼합기가 또 한차례 걸죽한 혼합물을 쏟아낸다. 운전공 김철민동무가 긴장한 눈빛으로 손목시계를 연방 보며 기대의 단추들을 잽싸게 조종한다.

《기대운전공의 책임성에 따라 콩크리트혼합물과 타입물의 질이 담보됩니다.》

리단정치부장 김은규동무가 맛들이에 혼합물을 듬뿍 담은 돌격대원들이 승강내기로 들어선다. 남자들과 함께 《영차, 영차》 하며 젊음을 놓는 처녀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혼합물맛들이전에 참가한 운반조가 40개라니 다짐공들 역시 숨돌릴 사이가 없다.

기술중대 정응남, 5대대 3중대 리옥경, 1대대 1중대 김성민, 5대대 2중대 김철…

이들만이 아니다. 영예계시판의 주인공들인 직속중대 지성철, 용접공 최강철동무들은 비록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지금 체육관무대와 현관부쪽에서 쉬임없이 날려가는 용접불꽃은 장자강의 불야경을 더욱 휘황하고 찬란하게 할 불보라가 아니겠는가.

공연은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전후 불타버린 산발들에 목욕히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선동극에 이어 노래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가 울려퍼지자 수많은 관중들이 함창으로 열렬히 호응하였다. …

이것은 얼마전 어느 한 산발에서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서 송원군산림경영소 종업원들이 진행한 공연의 한 장면이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사람들은 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애써 키운 나무모를 떠옮기며 그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정성을 기울이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때 산림경영소 지배인 안정복동무는 8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대중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양묘장과 나무심기전투장은 물론 협동농장과 림산마을, 외진 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루에 평균 100여리길을 걸으며 선전활동을 벌려가는 그들이 송원호를 건너 연강리에 도착했을 때였다. 악기들과 음향기재를 메고 땀에 흠뻑 젖어 들어서는 그들을 보며 그곳 주민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송원호의 위험한 얼음길도 주저없이 건너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안정복동무와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것이다.

그날 연강리주민들은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며 산림복구전투에서 애국의 열정을 바쳐갈 결의를 다지였다.

현지보도

불야경속의 불야경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장에서

전시회도 전투분위기에 맞게

지난 6일 자강도당위원회 회의실앞마당에서는 잠기구전시회가 있었다. 잠박, 누에깔개를 비롯한 수십종에 1만여점의 잠기구들이 출품된 전시회에는 도급기관과 해당 단위 일군 1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자강도를 잠업도, 비단도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열의속에 열린 전시회에는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여러 단위에서 내놓은 많은 잠기구들이 출품되였다.

특히 강계의학대학 연구사들이 대용소독약을 연구완성하여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져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시회를 평가하게 되는것은 그 규모와 내용도 좋지만 진행방식 또한 전투적이고 실리적이기때문이다.

전례없는 규모의 전시회준비에는 많은 품이 들었지만 그 진행시간은 불과 30분안팎이였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실효는 대단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의 요구에 맞게 전시회를 혁신적으로 조직하였다. 우선 전시회의 장소와 시간문제를 잘 해결하였다.

이날 도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일군들의 학습을 진행하는 계기에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전시회를 하도록 하였던것이다.

그러니 70일전투로 바쁜 일군들을 따로 모이게 하지 않아 좋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나눌수 있어 좋았다.

현지보도반

호전광들은 서뿔리 경거망동하지 말라

지금 세계의 수십억인류는 지구의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리성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핵전쟁도발을 걸어왔다. 무서운 핵참화를 예고해주는 핵전쟁의 발동기가 걷잡지 못하게 돌아가는 곳이 오늘의 조선반도이다. 온 세계가 미국과의 핵전쟁상태에 들어선 우리 나라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은 단호한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적대세력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우리의 초강경대응과 관련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핵단두대치와 선제타격선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조선이 연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도발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수 없다,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제편에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가증스럽고 포악한 침략자들의 흉악한 몰골만을 보여줄뿐이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가장 로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전쟁연습에 미군무력을 전례없는 규모로 투입하였다.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 2만 7 000여명,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핵항공모함타격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미제의 모든 핵전쟁살인장비들이 총투입되였다. 미국의 거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지역에 전개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적대세력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에 앞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세지》, 《중대한 압박》, 《힘의 과시》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댔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고 《전략적인내》정책을 집권전기간 실시해온 오바마정부는 날을 따라 강성국가의 명마루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질겁하여 핵전쟁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언동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적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했다.

그에 따라 전시 우리의 최고지도부와 핵 및 미싸일기지들을 비롯한 중요전략적대상물타격을 작전임무로 삼고있는 미제침략군 특수작전무력들이 전개되였다. 미제침략군 륙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특수작전무력이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쳐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호전세력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특수작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과 엄중성을 배가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상륙을 가상하여 벌리는 침략적인 《쌍룡》훈련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공화국의 해안조건과 류사한 남조선 포항일대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강행되는 이 상륙훈련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해병대를 포함한 특수작전무력 수만명과 수많은 상륙함선들, 공격수단들이 총투입되고있다. 전쟁열에 들뜬 적들은 《소극적방어를 넘어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하는 방안, 지휘부까지 선제타격하는 작전을 처음 실시한다.》고 떠들며 상륙후 공화국북반부의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적들은 이번 《쌍룡》훈련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상륙을 동반한 《정양진격》을 노린것이며 그것이 《작전계획 5015》의 최절정단계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질어삼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은 이뿐이 아니다. 미제는 전쟁연습을 실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선반도주변에 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립전태세에 두고있다. 3대핵타격수단의 하나인 《B—52》전략폭격기가 동북아시아지역을 배회하고있다. 최신에스텔스전투기들이 일본의 미군기지들에 무리를 지어 드나들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본토의 반덴버그침략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을 노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을 련이어 벌린것, 미군이 일본《자위대》와의 합동상륙훈련을 감행한것 등은 남조선에서 벌려놓을 북침전쟁연습의 현실성과 그 수행의 최종점토를 위한 선행작전들이였다.

미호전세력은 괴뢰군을 본토에 끌어들여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장을 처음으로 참관시키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소개, 견학시키는 놀음을 벌리면서 그것들이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떠들어댔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리게 될 북침핵시험전쟁을 앞두고 추종세력들에게 선제타격에 대한 미련과 무모한 격기를 부추기기 위해 이따위 유치한 놀음까지 벌렸을것이라는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압살공세에 광분하다 못해 핵전쟁도발로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켜보려는 적들의 북침전쟁광기는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일촉즉발의 핵화약고우에서 무모하게 강행되는 적들의 북침전쟁소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족이 무사할수 없고 세계가 핵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

미국이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며 핵전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응방식이 요구되였다.

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을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으로 맞받아치는것은 우리의 불변의 대응방식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끓어번지는 증오와 때배천배의 보복의지를 반영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였다.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로 나오는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작전집단들은 적들이 움직이면 그 즉시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조미대결의 총결산을 위해 수십년동안 다지고다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미국은 똑바로 보고 덤벼들어야 한다.

침략자, 호전광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작전전역들에 실전배비되여 임의의 시각에 쏘아버릴수 있게 준비된 핵탄의 보복세례를 면하려거든, 각이한 구경의 방사포탄의 불바다에 타죽지 않으려거든 서뿔리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리 현 도

벌거벗은 핵범인의 추태

최근 미전략군사령관 세실 하네이가 핵무기현대화는 《눈섭우에 떨어진 불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떠벌이였다. 핵무기현대화책동의 불가역성, 합법성을 운운한 이자의 망발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며 인류를 핵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추악한 핵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추태이다.

미국은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핵기술을 그 무엇보다먼저 대량살륙무기를 만드는데 악용한 나라이다. 인류에게 유일하게 핵재난을 들씌운 장본인도 미국이다. 원자탄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위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그것을 지배와 패권, 강권과 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다.

한때 현 백악관주인이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이라는것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오바마집권 7년이라는 기간은 그가 열심히 외워댄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이라는것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였다. 《미래의 전쟁》을 핵전쟁으로 규정한 미국은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전략보고서》에 쪼아박았다. 미륙군의 한 장성은 미국의 핵무기공장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있다고 실토하였다. 미해군은 잠수함수중탄도미싸일들을 교체하기 위한 《오하이오계획》강행에, 미공군은 새로운 전략폭격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함하여 핵무력전반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이 30년동안에 쏟아붓게 될 돈은 1조US$에 달한다고 한다. 인류의 현대문명을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되돌려세울수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며 핵무기현대화에 미쳐날뛰는 이런 핵전쟁광신자들이 있는 한 핵무기없는 세계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핵독점권을 장악하고 핵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적안정과 평화, 세계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국때문에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경쟁, 핵전쟁위협이 조성되고있다. 로씨야 국방상이 올해중으로 5개의 전략로케트련대가 실전배비되며 전략핵무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언명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그릇된 핵정책이 사태를 어느 지경에로 몰아가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가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핵무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가 배비되여있다.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북침공격기지로 되였다. 지금이 시각에도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군의 특수작전무력까지 투입된 이번 연습은 적들이 지금까지 넘볼새없이 외우던 《년례적》이며 《랑어적》이라는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벌리는 가장 로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시시각각 전쟁발발에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험악한 사태는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화근이며 평화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이달말에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개최한다고 너덜대고있다. 세계최악의 핵범인이자 핵전과의 주범이기도 한 미국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전파방지를 떠드는것은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하늘에 대고 혹소를 터뜨릴것이다. 핵무기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우롱은 없다. 오죽하면 미국의 한 언론이 핵무기현대화에 착수하고 확실한 핵무기축감의지도 없는 오바마행정부는 핵전파방지를 위한 책임적인 사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혹평하였겠는가.

루서운 핵이빨을 드러내고 세계를 씹어삼키려고 요동치는 악의 제국은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야 마땅하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탄들을 떨구어 한순간에 방사능먼지만이 흩날리는 죽음의 재허지대로 만들어놓은 미국의 치떨리는 만행을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미국은 그 누구의 핵을 거론하기에 앞서 핵범인으로서의 죄악부터 력사앞에, 인류앞에 속죄해야 한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란 있을수 없다.

배 금 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최근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끝끝내 7일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포악무도한 침략전쟁소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올근 한개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병력과 저들의 3대전략핵타격수단들 그리고 지난 시기 세계도처에서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특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이 연습에 투입시키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핵전쟁국면에로 치닫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와 괴뢰패당이 불법무법의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하고 련이어 핵전쟁살인무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체계적으로 격화시켜온 목적이 결국 북침전쟁의 구실을 마련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고 핵무기와 핵시설들이 밀집되여있는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장본인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의지를 오판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저들의 과녁적운명을 초래하게 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침사되는 그 모든 곳에 단 하나의 도발불씨라도 튕긴다면 조국인민들과 함께 그 즉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남조선 각계 단체들 반전평화활동 전개

남조선의 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정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 대한 《결정적행동》을 강행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반전평화활동을 전개하였다.

남조선경찰들이 상륙훈련장을 겹겹이 둘러싸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으나 그들은 투쟁의지를 굽힘이 없이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집회를 단행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쌍룡》훈련은 상륙작전을 통해 정양 등 내륙으로 진격하는것을 목적으로 감행되는 대표적인 선제공격훈련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이번 상륙훈련과 내륙진격작전이 북에 대한 공격과 침략, 점령을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행동이라고 단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련합상륙훈련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핵전쟁위기를 불러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선제공격무력시위 규탄! 〈한〉미련합상륙훈련 반대!》,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연습 중단하라!》, 《평화가 생존이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을 들고 구호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해외동포들의 분노의 함성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는 특별성명을 통해 미국과 괴뢰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무모한 망동으로 단죄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동포단체 일군들은 서뿔짜리《제재》와 핵살인무기로 조선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릴수 있다고 타산한것자체가 미국과 추종세력의 오판이라고 하면서 호전광들의 북침도발책동을 분쇄하는것은 초미의 과제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은 미국과 박근혜《정부》는 우리 민족의 념원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반민족, 반통일세력이라고 규탄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은 미국이 끝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업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들은 재일조선청년항의단을 구성하여 미국대사관과 괴뢰대사관앞에서 항의운동을 벌렸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등의 횡단막과 프랑카드들을 든 항의단은 반미, 반괴뢰함성을 터치며 조국청년들과 슴결과 보조를 같이하여 미국과 괴뢰패당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릴 재일조선청년들의 애족애국의 기상을 과시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대표들도 미국대사관과 괴뢰대사관앞에서 침략전쟁책동을 단죄하는 구호를 웨치며 미국과 괴뢰패당의 호전적망동에 항의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글들을 련이어 발표하는 등 그에 련대하는 활동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피할수 없는 비극적운명

가을날의 락엽같은것이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피할수 없는 처지이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모두 빼앗긴채 절망과 고통속에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그들은 갖은 모욕과 멸시, 사회적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로동생활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 녀성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81%에 불과하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아프리카계녀성들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69%,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은 58%를 받는다. 일본에서도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대대적인 해고소동과 로동생활에서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으로 약 15억명의 녀성빈궁자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은 가난과 빈궁속에서 성행하는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미국의 흑인녀성들속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자수가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활성화되고있는 《성산업》과도 관계된다고 한다.

미련방수사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체로 녀성들이 매춘행위를 시작하는 평균나이는 10대에 달하며 그보다 더 어린 소녀들도 있다고 한다. 세상물정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진한 소녀시절부터 돈에 팔려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처지에 대해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적학대와 폭행을 비롯한 온갖 폭력범죄의 희생물의 첫번째 대상도 다름아닌 녀성들이다. 이로부터 많은 녀성들이 감옥을 유일한 피난처로 정하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을 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 격이 되고있다. 미국의 감옥들에서 해마다 약 6만명의 녀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나 폭행을 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600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는데 그들에 대한 성폭행범죄건수만도 년평균 50여만건에 달한다. 유럽괴사회는 유럽적으로 녀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직업을 가진 녀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30%가 성적학대를 받았다고 울분을 표시하였다.

삶의 의욕을 잃은 수많은 녀성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어떤 녀성들은 살인과 강탈 등 각종 범죄의 길에 뛰여드는것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제도에 도전해나서고있다.

녀성센시, 녀성차별이 판을 치는 인권의 페허지대, 사는것이 말그대로 고통이고 죽음으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언제 가도 달라질수 없다.

본사기자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모략의 왕초 미국

또다시 드러난 비렬한 음모

얼마전 볼리비아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헌법수정안과 관련하여 진행된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파의 약간한 우세로 헌법수정안이 부결되였다.

이로써 2006년부터 집권해온 모랄레스대통령은 2020년에 임기를 마친 후 대통령을 더이상 련임할수 없게 되였다.

문제는 이번 국민투표가 모랄레스대통령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불순한 세력의 모략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투표전야에 반대파 보도수단을 발동시켜 모랄레스가 대통령직권을 리용하여 자기의 이전애인이 일하는 기업에 리익을 도모해주었다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랄레스대통령은 미국대사관과 반대파가 공모하여 자기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는것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며냈다고 규탄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미국이 일부러 모랄레스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획책하였으며 그 목적은 모랄레스와 볼리비아의 진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독립과 발전과정을 말살하는데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여론전을 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반모랄레스음모를 꾸민것은 오래전부터였다. 모랄레스대통령이 집권한 첫 시기부터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모랄레스는 반미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2006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미국의 온갖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적진보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들을 내놓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천연가스자원의 국유화를 정식 선포하고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국유화사업을 다그쳐 볼리비아에 대한 서방회사들의 강탈행위를 끝장내였다. 지난 시기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웠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자주화흐름은 미국을 불안에 빠뜨렸다. 미국은 모랄레스정부를 전복할 목적밑에 이 나라에 들어보낸 모략군들을 리용하여 볼리비아에 대한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감행하였다. 2008년 미정탐기관의 각본에 따라 볼리비아의 반정부세력들에게 자금을 대주면서 이 나라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던 볼리비아주재 미국대사가 그만 꼬리를 밟히게 되였다.

볼리비아대통령은 이것을 주권국가에 대한 횡포한 내정간섭책동으로 락인하고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단호하게 추방하였다.

악에 받친 미국은 반볼리비아책동에 더욱 열을 올렸다. 각종 명목의 모자를 뒤집어씌우고 음모군들을 또다시 볼리비아에 침투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전복책동은 통하지 않았다.

2013년에 볼리비아정부는 《원조》기구의 탈을 쓰고 들어온 미국제개발처가 야당세력을 반정부음모에로 내몰려는것을 까밝히고 그 성원들을 쫓아버리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느니, 《무근거한 주장을 부인한다.》느니, 《볼리비아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야망을 감추어보려는 얕은 술책이였다.

이처럼 모랄레스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집요하게 감행되여왔다. 이번에 있은 국민투표사건도 바로 이런 책동의 연장이다.

사실들은 비렬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에 미쳐날뛰는 미국의 책동이 날로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교훈은 매개 나라들이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정권붕괴, 제도전복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위선자의 잔꾀

미국방장관이 《이슬람교국가》와의 싸움에서 저들주도의 노력이 인차 《실제적인 은》을 내게 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슬람교국가》공습에 참가하고있는 나라들이 미군의 새 전투계획에 합세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위선자의 서툰짜리 잔꾀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이슬람교국가》가 생겨나자 여러 나라들을 휘동해가지고 그 《소탕》에 나섰다. 테로공격들과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는 테로분자들을 처벌해여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간판밑에서였다. 지금껏 미국과 서방의 보도수단들은 저들의 공습으로 많은 테로분자들이 소탕되였다느니, 어떠어떠한 기지들이 녹아났다느니 하면서 선전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쓴웃음을 자아내고있다.

사람들은 미군주도의 다국적군이 지금껏 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해당 나라의 도시와 마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테로조직들이 더욱 활개치도록 한것뿐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이러한 비난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전과》를 올린다고 들아치는 전장에서 테로분자들의 활동은 저조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지난해에 세계의 각곳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테로사건들의 대다수는 《이슬람교국가》세력이 조작한것이였다. 점령지들에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략탈하며 랍치한 인질들에 대한 살인행위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테로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있는 원인은 미국에 있다. 수리아문제에 개입한 미국의 목적은 《이슬람교국가소탕》이 아니다.

미국외교협의회의 한 연구원은 오바마의 정책은 테로분자들을 《철저히 소멸》하는것이 아니라고 실토하면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와 정말로 공격적인 전쟁을 하려면 테로분자들을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란국회 의장은 미국이 《이슬람교국가》를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으며 테로분자들로 하여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행위들을 감행하도록 더욱 부추기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베네수엘라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 총비서는 미국이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중동지역을 분렬시키는데 써먹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미국의 목적은 현 수리아정부의 전복이다. 수리아를 저들의 중동지역지배전략실현에서 저해로 되는 존재로 아니꼽게 보아온 미국은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교국가》가 활개치자 그에 대한 《소탕》을 간섭의 좋은 구실로 삼은것이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군비행기들은 《이슬람교국가》기발을 단 수십대의 자동차행렬우로 지나가면서도 타격하지 않았다.

수리아의 승인도 없이 그 나라의 지역들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하고 반대파세력들을 훈련시켜 들이밀면서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세상사람들은 테로분자《소탕》을 운운하면서 한 주권국가의 운명을 통락하려드는 미국의 음흉한 행위들을 규탄하며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수리아는 나라앞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순세력들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수리아정부군은 자국의 민병대들과 함께 공군의 공습에 보조를 맞추어 테로세력들의 기지들을 공격하고있다. 수많은 테로분자들이 소멸되고 지휘부와 양성소, 무기, 탄약 및 물자보관고들을 비롯한 대상들이 파괴되고있다. 성과를 확대하면서 수리아의 무력은 테로분자들로부터 마을들을 해방하며 진격의 속도를 높이고있다.

수리아의 녀성들도 함세해나서고있다. 그들은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라고 하면서 손에 무기를 잡고 남성들과 어깨나란히 싸우고있다.

얼마전 수리아정부는 반대파세력과 교전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수리아의 확고한 립장과 노력에 미국이 바빠났다. 날이 갈수록 저들의 범죄적정체가 드러나고 수리아정부의 전복을 노린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실제적인 은》을 내는 작전이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테로분자소탕에서 저들의 지위를 부각시켜 음흉한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진정 테로분자소탕에 관심이 있다면 그따위 말장난으로 위선적인 정체를 가리우려고 모지름을 쓸것이 아니라 중동문제에서 하루빨리 손을 떼고 제 소굴로 돌아가는것이 상책이다.

김 국 철

ㄱ-6104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